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020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세계시민교육



작은 미생물 앞에서

무스타파 달렘(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전투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자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강화 등등도 (프랑스 경우)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 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맘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갓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에)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차 례

2020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세계시민교육



1. 학습목표	1
2. 수업 모듈	2
3. 관련 교과 및 성취수준	3
4. 학습 자료의 성격 및 활용 안내	4
5. 학습 주제 목록	7
➡ 자료 1	8
➡ 자료 2	13
➡ 자료 3	18
➡ 자료 4	21
➡ 자료 5	27
➤ 세계시민교육 발간 자료 활용 사이트 안내	

2020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세계시민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봅시다.

코로나19는 세계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연대하는 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교와 경쟁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국가주의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알아보며 긍정적인 해결 사례와 부정적인 해결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학습목표

- 코로나19를 통해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는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 미래 생길 수 있는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해하기

공감하기

실천하기

학생 주도적인 배움이 되도록 합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

세계시민교육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목표로하는 수업이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내적 공감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탐구(질문) 예시
이해하기 인지 영역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우리나라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병은 어떻게 생긴 질병인가요? • 코로나19 감염병은 증상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긴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감하기 사회 정서 영역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이 노력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실천하기 행동 영역	어려움에 처한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했나요? • 코로나19 해결 실천 방법을 찾아보았나요?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표현을 했나요?

관련 교과	성취기준	핵심 역량
사 회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역량
	[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도 덕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비판적 사고력
	[4도03-02]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의사 결정력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 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가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는 연대와 책임의 세계시민성 함양 자료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들이 **지구 공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고 지구 공동체의 더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 19)으로 인해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는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Naomi Klein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The Shock Doctrine :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쇼크 독트린)'에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충격을 겪고 나면 뇌가 백지가 되고 과거의 질서를 다 잊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역으로 **새로운 모습의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전 인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자 재난이지만 **바로 지금 이때가 앞으로 우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타국 혹은 타인에 대한 폐쇄와 혐오의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지구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지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했던 세계 각국의 모습에서 이미 그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구 공동체와 함께 견뎌내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교재로 활용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후 직접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 융합 혹은 주제 중심 수업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 학생들의 합리적, 과학적 탐구를 도모하는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박쥐로부터 시작한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로 천산갑을 거쳐 가공 과정에서 인간에게 옮겨왔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특정 국가 혹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정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탐구와 자연과 공동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인수공통감염병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그 원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 주변 사람을 살피고, 공감하고 나아가 격려하는 실천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많은 의료계 종사자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행업이나 요식업 종사자들 그리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우리 사회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서로 돕고 지원하며 지지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현할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 등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세계가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 미디어 자료를 비판적 관점에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재의 많은 수업 자료가 참여하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뉴스 혹은 기사를 검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 시점의 최근 기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동시에 뉴스 혹은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학생들 스스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실유무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바 사회, 도덕 이외 여러 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합니다.

본 자료가 주로 도덕 혹은 사회과목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학과목과의 연계 수업도 가능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영상을 활용하여 영어 교과와도 연계하여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초등 사례 2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 수업에서 털실 던지기 활동은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거나 선 뒤에 먼저 한 사람이 원 안의 다른 사람에게 털실을 던지고 털실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자기 손가락에 그 털실을 걸고, 자신이 받은 털실 뭉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에 털실을 걸어서 활동이 종료될 즈음에는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털실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활동입니다.

개학 후에 학생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참여하는 학생과 관찰하는 학생을 분리해서 털실을 던지는 학생 4~6명 정도가 각 지구에 있는 대륙을 상징한다고 가정한 후에 교실의 각 지점에 1미터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서서 서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	수업 주제	비고	
자료1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혐오와 차별	초등	
	나와 네가 아닌 모두의 문제 코로나 19!		
	모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료2	뜨겁게 모아지는 사랑의 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 명칭의 의미는		
	코로나19 확진자 경로 추적과 개인정보유출		
	코로나 전염병의 특징과 확산을 통해 배울 점은		
자료3	세계는 지금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함께 챌린지		
자료4	코로나 19와 야생동물		중등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생태적 거리 두기와 생태적 삶		
자료5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지?		
	지속하는 지구촌 문제! 바로 나의 문제였어!		
	Wow!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고 있어! 나도 친구들에게 힘이 될 거야!		

* 위 자료의 학교급 구분은 자료제작자 기준이오니 재구성하여 공동사용 가능함.

1. 학습목표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 상황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 코로나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

2. 관련교과 및 성취기준

관련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사회	<p>[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p> <p>[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p> <p>[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p>	공동체 역량, 문제해결 역량
도덕	<p>[4도03-02]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p> <p>[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p>	

3. 구성 및 수업 팁

[이해하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사례를 알아보기

- ▶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처한 갈등과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공감하기]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공감하기

- ▶ 코로나19를 위해 일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해 보고 공감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기관들의 활동을 알아본다.

[실천하기] 어려움에 처한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 ▶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본다.

수업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뉴스를 읽으며 수업을 진행하므로 시의성에 맞게 뉴스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코로나19가 초기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했던 모습,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했던 모습 등을 생각해보며 비난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업 후 BBC뉴스의 강경화 장관의 인터뷰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

학습주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혐오와 차별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16일 격리보다 힘든 건,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종이 한 장”

코로나19 확산 뒤 한 달 보름 남짓한 동안, 장린을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1월2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나흘 만에 45만명을 넘어서더니, 최종 76만18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한국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중국 특성상 늦어도 개강 한 달 전에는 한국에 들어와 거처 마련,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비자 연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 탓이다. 특히 한국이 낯선 신입 중국 유학생들에게 ‘중국 포비아’는 더 큰 공포였다. 장린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인 위챗방에서 신입생들은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등이 담긴 고민을 올리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천명(9일 기준)을 넘어서면서 ‘중국 포비아’가 ‘한국 포비아’로 옮겨가

“한국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라면 같은 것을 사놓아야 한다” “중국에 들어와라. 지금 중국은 좀 안정적이다.” 가족은 날마다 장린을 걱정하는 말을 위챗으로 보내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국민 4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전망은 졸업을 하고 귀국하겠다는 장린의 의지마저 흔들고 있다. “요즘 학교 근처에 방역복 대신 비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마스크를 낀 중국 학생들을 자주 봐요. 한국보다 중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다들 돌아가는 거죠. 저도 아직 학비를 내지 않고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 출처: 한겨레 신문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1.html#csidx26b6baafad7c2329cf7e6b2ae5b166e>

단 계	생각해볼 질문	비 고
이해하기	• 중국 유학생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나요?	
공감하기	• 중국인 출입금지를 바라본 중국인 유학생 심정은 어떨까요?	
실천하기	• 앞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포비아: 매우 싫어한다는 뜻

학습주제 나와 네가 아닌 모두의 문제 코로나19!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중국, 내일부터 한국에 마스크 수출...“1차물량 500만장”

중국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돕고자 오는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한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하고 한국의 마스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 측에서 3월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마스크 총 500만 장이 된다"면서 "앞으로 중국 측에서 계속 한국에 마스크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허난성, 산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상하이시, 장쑤성, 푸젠성, 장시성, 선전시, 텐진시 등 10개 성과 시에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가급적 빨리 한국에 순차적으로 수송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정보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양국 기업들이 연결해서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 출처: 연합뉴스

▶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179151504?input=1195m>

미 백악관과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과학기술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유선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기영(사진) 장관은 켈빈 드로그마이어 미 백악관 실장과 한-미 양국 간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해법 모색 등을 통해 코로나19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과학적 방법 발굴과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모델', '자가진단 앱' 사용 등의 사례에 대해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기술과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 확인과 문진, 진료 등 검체 채취, 안내문 및 약품 배포 등 일련의 검사 과정이 모두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유선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출처: 디지털 신문

▶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0902102131731001&ref=naver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사에서 찾아 이야기 해봅시다.
2	이러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협동, 사랑, 희생 등)
3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아래의 그림을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알아보시다.

지역별 주요 애로 사항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학습주제 **모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놀면 뭐하니' 유재석, 밴드 혁오와 '코로나19 극복' 방구석 콘서트 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 등 위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놀면 뭐하니?' 역시 문화예술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길 바라는 취지로 '방구석 콘서트'를 개최한다.

'방구석 콘서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이 취소돼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아티스트를 한자리에 모은다. 대중가요부터 뮤지컬, 판소리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한 꺼 번에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출처: 디지털 신문

▶ 원문보기: https://www.ytn.co.kr/_sn/0117_202003071434110622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위 기사의 등장인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했나요?
2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코로나19 관련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왜 해결하고 싶나요?
3	세계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해결사가 되어봅시다. (의료인, 정치인, 교사 등 어떤 분야라도 가능해요!)
관 련 기 념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보건의 날(매년 4월 7일, WHO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봉사자에게 감사 편지 쓰기 -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학생 행동 수칙 캠페인 자료 제작하기
관 련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데이비드 콰먼, 꿈꿀자유) •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지승호, 시대의창) • 위험한 요리사 메리(수전 캠벨 바틀레티, 돌베개)

학습주제	뜨겁게 모아지는 사랑의 힘	학습대상	초 고학년, 중, 고
학습목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세계시민의 실천사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볼 수 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코로나19 사투 의료인에 감사"...영국 전역서 수백만명 박수응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어둠이 드리워진 26일(현지시간) 오후 8시(그리니치표준시:GMT). 런던의 명물 런던아이는 물론 웹블리 구장 위 아치형 장식물인 웹블리 아치, 공연장인 런던 로열 앨버트 홀 등 주요 명소에 일제히 조명이 들어왔다.

이에 맞춰 영국 전역 수백만 가정의 현관과 창문, 발코니 등에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일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 간병인 등에 대한 고마움에 전 국민이 박수로 화답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보살피는 이들을 위해 박수'('Clap for Carers) 캠페인 주도자들은 코로나19와 약전고투 중인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표시하자며 전날 오후 8시에 모두 집 현관이나 발코니 등에 나와 응원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이기는 미담 줄이어

정부지원금 모아 100만 원 성금 기부한 화정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돼지저금통 털어 기부한 쌍봉동의 고등학생까지

▶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코로나19 극복 응원 위해 꽃바구니 기부

어려운 화훼농가 돕고 힘들고 지친 대구지역 의료진 등 전달 [대구 위클리오늘=정종운 기자] 대구그린시티포럼과 한국화훼학회는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꽃바구니를 기부했다



단 계	활동 주제(질문과 토론, 활동 중심)	비 고
이해하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공감하기	•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사회와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실천하기	•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봅시다.	

학습주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	학습대상	초·고학년, 중, 고
학습목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례를 알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덴마크 보건장관 "韓진단키트 거절 치명적 실수" 대국민사과

[중앙일보] 입력 2020.03.25 19:51 수정 2020.03.25. 20:09

덴마크 보건 당국이 한국 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제공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25일(현지시간)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등에 따르면 마그누스 헤우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심사 강화 180개국

디지털조선일보 기사입력 2020.03.26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민 우선을 중시하며 타국가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180개국으로 늘어났다

제주도, 코로나 증상있는데 5일간 쏘다닌 모녀에 소송 건다

[중앙일보] 입력 2020.03.26 19:12 수정 2020.03.27. 12:35

강남구청장 "제주도 여행 모녀 정신적 패닉...선의의 피해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3-27 18:43수정 2020-03-27 18:46

단 계	활동 주제(질문과 토론, 활동 중심)	비 고
이해하기	• 이러한 문제를 왜 생겼을까요?	
공감하기	•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실천하기	•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학습주제	코로나19 명칭의 의미는	학습대상	초·고학년, 중, 고
------	----------------------	------	----------------

학습목표	코로나 명칭의 의미를 알고, 용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	---	--	--

○ 다음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COVID-19 (코로나19)
COrona **VI**rus **D**isease-2019

'CO'는 코로나(corona)를,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병(disease)을 의미. 숫자 '19'는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병된 2019년을 의미 합니다.

WHO가 정한 영어식 명칭을 간편하게 부르는 **한글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입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 지리적 위치 ▷ 사람 이름 ▷ 동물·식품 종류 ▷ 문화 ▷ 주민·국민 ▷ 산업 ▷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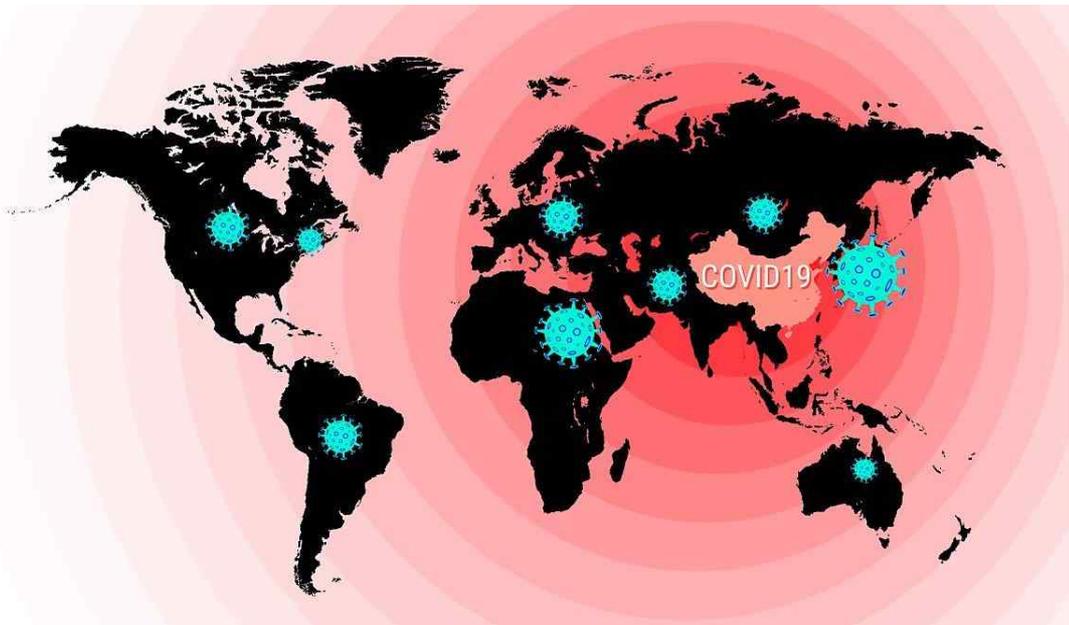
단 계	활동 주제(질문과 토론, 활동 중심)	비 고
이해하기	• 코로나19라는 명칭은 누가 어떤 의미로 만들었나요?	
공감하기	• 일부에서 '우한코로나'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왜 일까요?	
실천하기	• 생활에서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돌이켜보고 반성해봅시다.	

학습주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통해 배울 점은?	학습대상	초, 고학년, 중, 고
학습목표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 세계의 연결성에 대해 알고 향후 대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단 계	활동 주제(질문과 토론, 활동 중심)	비 고
이해하기	• 코로나19 감염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공감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여러 실천 사례를 알아봅시다.	
실천하기	• 감염증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학습주제	코로나19 확진자 경로 추적과 개인정보유출	학습대상	초 고학년, 중, 고
학습목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유출과 기본권침해 입장에 대해 토론하며 각각의 의미를 알고 실천방법을 찾을 수 있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봅시다.

“셀카로 증명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인증앱 확산..사생활 논란도

이탈리아 등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자가 격리자 동선을 ‘셀피’(셀프 카메라.이하 셀카)로 추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AFP통신 등은 20일(현지 시간)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 홍콩은 지난 19일부터는 아예 입국자 전원에게 전자팔찌를 지급하고 위치 정보 감시에 들어갔다.

폴란드 경찰은 이날 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500즈워티(약 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안면 인식 기술과 로봇을 도입해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물론 체온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러 대응작전에 활용하던 위치 추적 기술을 도입, 영장 없이 코로나 확진자 휴대전화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30일짜리 긴급 명령을 내렸다. 대만은 자가격리 대상자 자택에 ‘전자 펜스’를 두르고,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끄면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1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나우뉴스

▶ 원문보기: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5601010&wlog_tag3=naver

단 계	활동 주제(질문과 토론, 활동 중심)	비 고
이해하기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봅시다.	
공감하기	•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코로나19 자가격리 인증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실천하기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1. 학습목표

- 코로나19 문제를 바탕으로 세계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2. 관련교과 및 성취기준

관련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사회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공동체 역량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덕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3. 구성 및 수업 팁

[이해하기] 세계는 지금

- ▶ 코로나19 세계 현황지도를 보며 이유를 생각해 본다.

[공감하기] 너와 나의 연결고리

- ▶ 몸 활동을 통하여 연결됨을 느끼고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실천하기] 우리함께 챌린지

- ▶ 나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응원을 전한다.

▶ 코로나19 문제를 통해 세계 구성원이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발견(이해)하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서로 연결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공감하며,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동(실천)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수업
팁

▶ **주의할 점:** 몸활동에서 털실을 던질 때, 꼭 내가 한손으로는 털실을 잡고 털실뭉치를 던져야 하며, 얼굴을 향해 던지지 말고 이름을 먼저 부른 후 던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삼각형게임을 할 경우 되도록 나와 멀리 있는 친구(혹은 나와 잘 이야기를 안해 본 친구 등)를 고를 수 있도록 말해주고, 정삼각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정삼각형을 만들며 학생들이 움직일 때 교사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한명의 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경우를 포착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자리에 앉는 규칙을 적용 할 때 그 한명의 학생을 앉히면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이 앉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의 흐름	내용	비고
발견하기	<p>☒ 세계는 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지도(대한민국 지도)에서 색깔이 칠해진 나라(지역)들을 살펴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있는 나라(지역)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 나라(지역)으로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이트(세계지도, 대한민국 지도) : https://corona-board.kr/
공감하기	<p>☒ 너와 나의 연결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활동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봅시다. (제시된 두 가지 놀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놀이1 : 털실 게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넓은 공간에 학생들이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앉는다. ② 한 명의 학생이 털실뭉치의 실을 손가락에 걸은 뒤, 털실뭉치를 전달할 친구 한 명을 선택한다(옆 친구보다는 떨어진 친구 중에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털실을 받지 않은 친구 중에 선택하도록 한다). ③ '나와 연결된 OO!'이라고 외치며 친구에게 털실뭉치를 굴러준다. ④ 털실뭉치를 받은 친구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가락에 실을 걸고 다른 친구를 선택해 '나와 연결된 OO!'라고 외치며 털실뭉치를 전달한다. ⑤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연결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한다. ⑥ 진행자(교사)가 지목하는 학생이 털실을 감은 손가락을 움직여본다. 이때 털실이 움직이며 여러 학생들의 손가락과 털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며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p style="text-align: center;">놀이2 : 삼각형 게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넓은 공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다. ② 각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아무나 2명의 친구를 고르고 그 친구들이 서있는 위치와 나의 위치를 선으로 이어 정삼각형이 되도록 움직인다. 단, 자신이 생각한 2명의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③ 진행자(교사)는 나의 움직임이 다른 친구들, 나아가 학급 구성원 전체를 움직이게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시킨다. ④ 모든 학생들을 제자리에 서도록 하고, 진행자(교사)가 1~2명의 학생에게 손을 대면 해당 학생은 아웃이 되어 자리에 앉는 새로운 규칙을 안내한다. 이 때 아웃된 학생을 정삼각형의 꼭짓점으로 생각했던 학생들도 함께 아웃이 되어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안내한 뒤 1~2명의 학생에게 손을 댄다. 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진행자(교사)는 우리 개인이 처하는 어떤 작은 문제가 공동체 전체(나아가 지역이나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놀이1 준비물 : 털실뭉치

수업의 흐름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활동을 마친 뒤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개인)의 작은 문제나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도 나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 하기	<p>☒ 우리 함께 챌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연결된 주변(세계, 지역 등)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건강, 경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응원을 전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봅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함께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우리 반 또는 우리 모둠(개인)의 해시태그를 정한다.(예: #힘내자_우리모두 등) - 색지에 자신의 손바닥을 대고 그린 뒤 가위로 오린다. - 손바닥 모양 색지에 해시태그와 응원의 메시지를 간단히 적는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바닥 색지를 들고 5~10초 정도의 응원 영상을 촬영한다.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촬영 영상을 편집, 우리 반 챌린지 영상을 완성한다. </div>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acef_HeRRcl (유튜브-모두대구챌린지)
관 영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7924&re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속 빛난 '달빛동맹' 나눔-연대로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youtube.com/watch?v=Fj1nYYuxJv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로 떠난 전국 각지 의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tv.naver.com/v/1260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 함께” 코로나19 확산 속 나눔 행렬 	
관 련 기 념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보건의 날(매년 4월 7일, WHO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봉사자에게 감사 편지 쓰기 -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학생 행동 수칙 캠페인 자료 제작하기 		
관 련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데이비드 콰먼, 꿈꿀자유) •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지승호, 시대의창) • 위험한 요리사 메리(수전 캠벨 바틀레티, 돌베개) 		

1. 학습목표

-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질병이 창궐할 때,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2. 관련교과 및 성취기준

관련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사회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도덕	[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 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3. 구성 및 수업 팁

[이해하기] 코로나19와 야생동물

- ▶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본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날 이러한 질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새롭게 바라보기]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 ▶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을 통해 우리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어떠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필요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실천하기] 생태적 거리두기와 생태적 삶

- ▶ 이러한 질병이 창궐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본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질병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해본다.

- | | |
|------|---|
| 수업 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 기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므로 시의성에 맞게 뉴스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고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업 후 기후변화 또는 동물권으로 확장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

학습주제 코로나 19와 야생동물

○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책 소개: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데이비드 콰멘 저/강병철 역

잇을 만하면 찾아와 닭을 몰살시키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조류독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아프리카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에볼라, 2,900만 명의 사망자와 3천만 명이 넘는 환자를 낳은 세기말적 역병 에이즈, 2015년 우리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던 메르스, 소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요독증후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병, 즉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왜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올까? 인간과 동물이 접촉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촉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숫자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늘고 있다. 이 책은 중국 남부의 박쥐 동굴과 광둥성의 식용동물시장, 콩고 강변의 외딴 마을들, 중앙아프리카의 정글, 방글라데시의 오지,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그리고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홍콩을 종횡무진 누비며 개성 넘치는 동물들과 무시무시한 병원체들이 사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모험소설을 읽는 듯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를 펼치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왜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지, 이대로 가면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 파국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스·메르스·코로나... 동물 병균, 기후 변화로 더 날뛴다

2002년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년 살인진드기,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신종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21세기는 '신·변종 감염병의 시대'가 됐다.

최근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 대부분은 동물들로부터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종 감염병 대부분이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토착 질병이었지만 교통수단의 발달과 국제 교류의 증가 때문에 쉽게 퍼져 나가고 이동과정에서 병원균이 변형돼 독성이 강해지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과 전파 매개 동물

메르스 박쥐, 낙타	
에볼라 과일박쥐, 침팬지	
사스 박쥐, 사향고양이	
에이즈 작은흰코원숭이, 붉은머리 망가베이	
조류 인플루엔자 새	
뎅기열, 뇌염 모기	
프쯔기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등줄쥐, 집쥐	
렙토스피라 들쥐, 집쥐, 족제비, 개	
브루셀라 염소, 양, 소	

▶ 출처 : 서울신문

▶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30022006#csidxd8f42a2ee360ca4bf90e64446a70dc2>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준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인수공통감염병을 자세하게 조사해봅시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757 1417 1742"> <thead> <tr> <th data-bbox="284 757 459 846">인수공통 감염병명</th> <th data-bbox="459 757 592 846">발생연도</th> <th data-bbox="592 757 730 846">관련동물</th> <th data-bbox="730 757 1417 846">전 세계의 피해 규모와 그 외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846 459 1070">사스</td> <td data-bbox="459 846 592 1070"></td> <td data-bbox="592 846 730 1070"></td> <td data-bbox="730 846 1417 1070"></td> </tr> <tr> <td data-bbox="284 1070 459 1294">신종플루</td> <td data-bbox="459 1070 592 1294"></td> <td data-bbox="592 1070 730 1294"></td> <td data-bbox="730 1070 1417 1294"></td> </tr> <tr> <td data-bbox="284 1294 459 1518">메르스</td> <td data-bbox="459 1294 592 1518"></td> <td data-bbox="592 1294 730 1518"></td> <td data-bbox="730 1294 1417 1518"></td> </tr> <tr> <td data-bbox="284 1518 459 1742">코로나19</td> <td data-bbox="459 1518 592 1742"></td> <td data-bbox="592 1518 730 1742"></td> <td data-bbox="730 1518 1417 1742"></td> </tr> </tbody> </table>	인수공통 감염병명	발생연도	관련동물	전 세계의 피해 규모와 그 외 특징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인수공통 감염병명	발생연도	관련동물	전 세계의 피해 규모와 그 외 특징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날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주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엣그제 제인 구달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내 안부를 물었다. 올해 85세인데도 매년 거의 100국을 순방하며 자연보호 메시지를 전파하느라 여념이 없는 세계적 환경 운동가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매사에 긍정적인 선생님은 이 불행한 사건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야생 동식물에 관한 우리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얘기한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1973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라고 부름)'을 조인하며 제정한 기념일이다. 지금까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을 기념했지만 이제부터는 순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 취지를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멧고기(bushmeat·원숭이, 박쥐 등 야생동물 고기)'를 요리해 파는 음식점이 성행한다. 멧고기는 원래 원주민들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사냥해 먹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 음식점이 생겨났다. 이제는 아예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 대도시에서도 버섯이 영업하고 있다. 그런 곳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오지의 원주민들이 숲을 들쭉수는 바람에 생면부지 바이러스들이 즐지에 인간 세계로 불러 나오고 있다.

우리가 사육한 고기보다 멧고기 맛이 더 좋을 리는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는 그동안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며 육질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위험한 기생충과 병원체를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었다. 가끔 야생동물 포획 현장에서 그들의 목을 따고 피를 들어켜는 사람들도 있는데, 걸쭉한 병원체 각테일을 입 안에 털어 넣는 그들의 객기는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 출처 : 조선일보

▶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4084.html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은 몇월 몇일이며,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인 구달이 바라는 인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학습주제 생태적 거리두기와 생태적 삶

○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19는 가톨릭이 생긴 지 처음으로 교황이 바티칸 광장에서 열린 삼종기도를 인터넷 중계로 대신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학교도 처음으로 개학을 미룬 상태다. 3월6일 현재 대구에만 교직원 38명, 학생 68명이 확진자이고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도 교직원 84명, 학생 231명이라고 한다. 대구경북 6천명이 넘는 확진자 중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규모에 따라 개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사라지는 데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글을 읽는다. 그 가운데 가장 뼈아픈 내용은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번역자인 의사 강병철의 인터뷰다. 194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300건 이상의 전염병 유행 가운데 약 12%가 신종 전염병인데, 그중에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으려고 북에서 오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 휴전선 아래를 봉쇄했다. 멧돼지가 농사를 망치고 도심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한 공포였다. 코로나19는 몇만 배다. 반 아이가 아파트 방충망에 매달린 박쥐 사진을 찍어서 무슨 새냐고 물을 때까지만 해도 동굴에 있어야 할 박쥐가 왜 사람의 영역까지 왔을까 신기할 때였다. 강병철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72%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야생의 영역인 생태계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더 무서운 전염병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겪은 바이러스만 해도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까지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면 과학기술은 이를 막아낼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는 역대급이다. 온 사람들을 마스크를 씌우고 사회적 격리를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검사키트와 치료약을 개발하게 되어 이 코로나19도 막아낼 것이다. 하지만 주기가 짧아지고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어쩔 것인가?

오랜 옛날에는 역병이 창궐하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조용히 반성하고 신에게 빌어야 했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숲이 사막화되면서 기후위기가 닥쳤으니 지금 멈추지 않으면 수년 안에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강과 하천을 파헤치지 않겠습니다. 먹는 욕심 줄이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하고 반성하고 자연에게 빌어야 할 때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더해 개발과 성장을 멈추고 생태적 거리두기 (ecological distancing)와 생태적 삶을 실천해야 할 때다.

▶ 출처 : 영남일보

▶ 원문보기: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308010001369>

"기후변화에 코로나19 연결돼 있다" 생태학자 최재천의 경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가 불러올 전염병 위험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온 그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사라질 생물 다양성, 그 두 문제에 코로나19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잘 살던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03년 창궐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사향고양이와 낙타를 거쳐 인간에게 감염됐다.

최 교수는 "박쥐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뿌릴 확률은 극히 낮다"며 "박쥐가 훨씬 자주 만나는 어떤 동물에게 옮겼고, 그 동물이 인간을 자주 만나는 바람에 제2, 제3의 숙주를 통해 온 거다. 이번에 천산갑이 중간숙주가 맞다면, 중국인들이 천산갑 비늘을 한약재로 쓰니까 가공하는 과정에서 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전염병 주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화, 남획 등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구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다. 인간과 소·돼지·닭은 전부 다닥다닥 모여 있으니, 야생동물발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스스로가 나서 에너지절약, 환경 파괴를 막는 생활 습관 변화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 ▶ 출처 :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코리아
- ▶ 원문보기: <http://www.greenpostkorea.co.kr>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i style="margin-left: 20px;">① <li style="margin-left: 20px;">② <li style="margin-left: 20px;">③ <li style="margin-left: 20px;">④ <li style="margin-left: 20px;">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이런 질병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학습목표

- 코로나19로 인한 나라별 문제와 전 세계의 갈등 사례를 읽을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난제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

2. 관련교과 및 성취기준

관련교과	성취기준	핵심역량
사회	<p>[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p> <p>[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p>	공동체 역량, 문제해결 역량
도덕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3. 구성 및 수업 팁

[이해하기] 코로나19로 인한 나라별 문제 및 전 세계의 위기 사례를 알아보기

- ▶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움직임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공감하기]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공감하기

- ▶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고민하기

[실천하기] 어려움에 처한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 ▶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본다.

수업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뉴스를 읽으며 수업을 진행하므로 시의성에 맞게 뉴스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우한의 초기부터 창궐하여 전 세계에 퍼져 모두의 문제가 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읽고, 성찰적 태도를 지님과 동시에 이타적 성품 신장을 꾀하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성취해가는 성숙한 세계시민의 역할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학습주제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지?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2020년 3월 23일 현재 기준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334,474명, 사망자 수는 14,6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 본토의 경우 사망자 3,270명, 확진자 8만 1,093명이며 그다음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 5,476명, 확진자 59,138명을 기록했고, 미국의 경우 확진자는 32,514명, 사망자 4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란의 경우 확진자는 21,638명, 사망자는 1,68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확진자 8,961명, 사망자 104명이다

아래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의 타임라인 (timeline)이다.

2019년 12월 31일 : 중국은 2019년 12월 31일 중부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특이한 폐렴 사례 몇 건을 WHO에 통보했다. 당시에는 무슨 바이러스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감염된 사람 중 몇몇은 2020년 1월 1일 폐쇄된 후난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일한 사람들이었다. 건강 전문가들이 경보음 내면서 바이러스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자 수는 40명을 넘어섰다.

1월 7일 :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월 7일 관계자들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신종 바이러스의 이름은 2019-nCoV로 확인되었으며, 사스 (SARS)와 일반 감기가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로 확인됐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이 있으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기는 물방울을 들이마시거나, 이 물방울들이 떨어진 표면을 만진 후 얼굴이나 코를 만지는 것을 통해 널리 퍼진다.

1월 11일 : 중국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를 발표, 이 바이러스는 해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61세의 남성이었다. 1월 9일 저녁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끝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월 20일 : 중국은 세 번째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감염 확진자를 보고했으며, 수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후베이성 외곽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한편 중국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국영방송 CCTV에 "사람 대 사람 전염이 확인" 돼 설 연휴를 맞아 수백만 명이 여행하면서 대형 발병 우려가

학습주제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이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 (high-risk areas of China)에서 입국하는 모든 공항에 의무적인 선별 검사를 도입했다.

1월 22일 : 중국의 사망자 수는 550명 이상의 감염 확진자가 확인됐고, 사망자가 17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유럽 공항들이 우한발 항공편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우한은 1월 23일 항공과 철도 출발이 중단되면서 효과적인 검역을 받았다. 같은 조치가 후베이성의 시안타도와 치비(Xiantao and Chibi) 두 개 이상의 도시에서 발표됐다.

베이징은 1월 25일부터 설 행사를 취소했고, 관계자들은 후베이성 밖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WHO는 1월 23일, 이 바이러스가 아직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중국 밖에서도 인간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1월 30일 :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 중국에서 7,711명이 감염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31개 지방으로 확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도와 필리핀은 각각 한 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여 첫 발병 사례를 확인했다.

1월 31일 : 중국 내 확진 건수는 9,809건으로 급증했다.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첫 번째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사례를 확인했다.

2월 2일 : 필리핀에서 우한에서 온 중국인의 첫 사망자가 중국 밖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사망자 수는 304명으로 늘어났으며 감염 확진자는 1만 4380명으로 집계됐다.

2월 5일 : 미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많은 전용기가 우한에서 돌아왔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유효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은 490명이 사망하고, 2만 4324명이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2월 7일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보를 울린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리웬량 (Li Wenliang)이 사망했고, 홍콩은 검역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징역형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사망자 수가 최소한 636명에 이르렀고, 31,161명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연구원들은 이 천산갑 (pangolin)이 동물과 인간 감염의 연결고리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월 11일 :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COVID-19”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내 사망자는 1016명으로 4만 2638명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2월 12일 : 일본 보건부는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에 175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1113명으로 4만 4653명이 감염됐다.

2월 13일 : 북한은 코로나 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의심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과 그 외 다른 방문객들에 대해 한 달 동안 격리 조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학습주제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지?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1,300명을 기록했고 6만 명에 가까운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일본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을 확인했다.

2월 14일 :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첫 확진자를 보고한 나라가 되었고, 프랑스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럽의 첫 사망을 보고했다. 중국은 121명이 사망자 발표, 중국 본토 전역의 총사망자 수는 거의 1,400명에 이르렀다.

2월 17일 :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70명, 확진자는 70만 548명이었다. 일본은 검열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에서 99건의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확인했다.

2월 19일 : 이란은 첫 번째 확진자를 확인한 지 몇 시간 후,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본토에서 7만 4185명의 감염 확진자와 2,004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중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이를 연속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월 21일 : 한국은 두 번째 사망과 100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보고하여, 총 204명을 기록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감염 확진 환자가 7만 5400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 수가 2236명에 달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람선에서 돌아온 한 여성이 양성반응을 보인 후 처음으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고했다. 이어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 지역은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국지적으로 전염된 것을 보고했는데, 3건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감염자가 6명이라고 보고했다.

2월 23일 : 몇몇 국가들이 이란에서 감염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란과 국경을 봉쇄했다. 이탈리아 관리들은 3명째 사망을 확인했고, 현지 당국은 유럽 최악의 피해를 본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베니스 카니발을 조기 폐막시키고 스포츠 행사를 중단시켰다.

2월 24일 :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오만 모두 그들의 첫 번째 감염 사례를 보고했다. 한편,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는 833건으로 급증했고, 7명이 사망했다. 중국 내 사망자 수는 각각 확진자는 7만 7262명, 사망자는 2595명으로 늘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7명째 사망자가 보고됐다.

2월 25일 : 발병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보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의 공식 사망자 수는 95명에 달했다. 한편, 한국의 확진 판례는 977건으로 늘어난 반면 이탈리아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2월 26일 :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800명에 가까웠고,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그리스, 조지아, 파키스탄, 북마케도니아, 브라질 모두 그들의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발견했다.

2월 27일 : 에스토니아, 덴마크, 북아일랜드, 네덜란드는 각각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를 보고했다. 감염자 수는 2,800명 이상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8만 2천 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650명으로 급증한 감염률을 보였으며, 현재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소재나 제품의 산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방수권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학습주제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이지?

2월 28일 : 리투아니아와 웨일즈는 그들의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보고했고, 네덜란드와 조지아는 두 번째 확진자 발생을 알렸다.

3월 3일 :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가 7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77명에 달하는 이란의 총사망자 수와 동일하다.

3월 7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수는 거의 3,500명이 됐으며, 90 개 이상의 국가에서 102,000명의 사람을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143건보다 줄어든 99건의 새로운 확진 사례를 보고해 전국적으로 총 8만 651건을 기록했다. 한편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은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17.2%나 급감했으며 이는 중국의 상당 부분의 수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란에서는 4천 747명이 확진됐고, 124명이 사망한 최악의 피해국 중 하나가 됐다.

3월 11일 : WHO : 팬데믹 (Pandemic) 선언 WHO declares coronavirus crisis a pandemic. 세계보건기구 (WHO)는 터키, 코트디부아르, 온두라스 그리고 볼리비아가 그들의 첫 번째 확진자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팬데믹 (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카타르에서는 하루 만에 감염자가 24명에서 262명으로 급증했다.

3월 15일 : 스페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2,000명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이 새로운 수치는 스페인의 COVID-19 사망자 수를 288명으로 증가시켰고, 7,700명 이상이 감염이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오스트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3월 16일 : 빌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미국에서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술집, 극장, 영화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터키와 파키스탄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란에서는 총 1만 4991명의 감염자와 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걸프 지역은 바레인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첫 사망을 기록했다.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 칠레와 과테말라는 두 남미 국가는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국경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3월 17일 : 이탈리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345명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하여 총 사망자가 2,503명으로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전체 발병 건수는 이전의 27,980건에서 31,506건으로 12.6% 증가했는데, 이는 2월 21일 전염병이 밝혀진 이후 가장 느린 증가율이다. 한편, 터키는 전염병과 관련된 첫 번째 사망을 보고했다. 사망자는 89세.

학습주제 코로나 19가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지?

3월 18일 :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처음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안전 비상사태”(human biosecurity emergency)를 선포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475명의 새로운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하루 동안 발생한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총 2,97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감염자는 모두 3만 5713명에 달했다. 전염병 발생 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국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3월 19일 : 이탈리아는 중국의 3,245명에 비해 3,405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를 낸 나라로 중국을 추월했다.

스페인의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209명에서 767명으로 급증했다. 대략 25%의 감염이 기록되어, 스페인의 총 감염은 17,147명으로 늘어났다.

3월 20일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의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2,958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1만 3957건이 됐다. 한편 스페인은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감염자가 입국해 제2의 파동을 해외로부터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음에도 이틀째 새로운 국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3월 21일 : 유럽은 이탈리아가 5만 3,578건의 감염 사례로 4,825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793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여전히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다. 스페인은 2만 1000여 명의 감염자와 최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본 나라다.

유럽 각국이 대유행을 막기 위해 EU는 공공 적자(public deficits)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함으로써 각국이 필요에 따라 경제에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처음 두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3월 22일 :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3,00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수는 311,000명을 넘어섰다. 인도에서는 최근 통행금지가 발효되면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자국들을 봉쇄했다. 포위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도 처음 두 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등록했다 .

▶ 출처 : 뉴스타운

▶ 원문보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95>

학습주제

지속하는 지구촌 문제! 바로 나의 문제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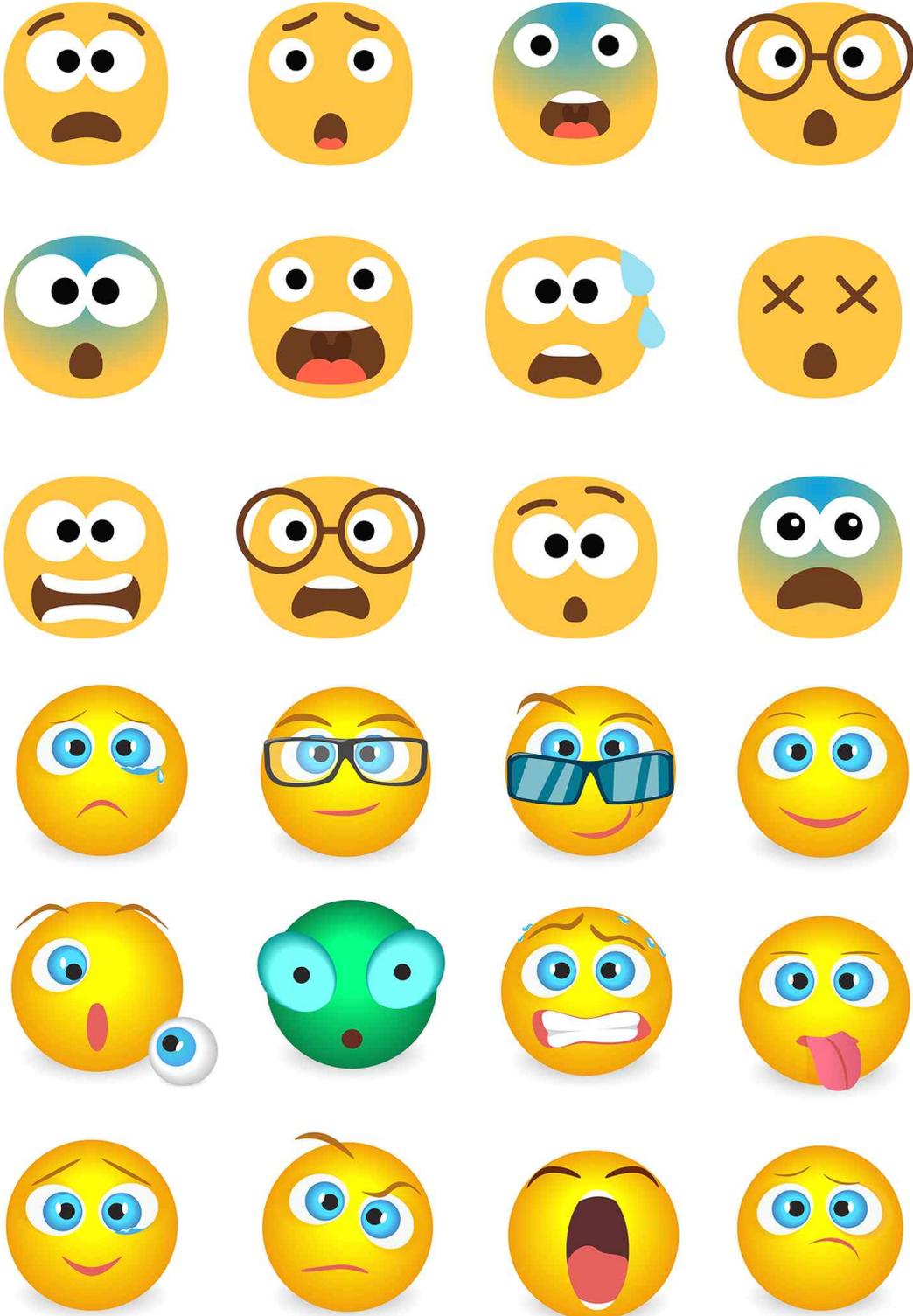
○ 코로나19 타임라인 기사를 읽은 후, 날짜별 기사 중 6개를 선별한 후 아래 Covid19 Events Timeline Outbreak의 첫 줄의 예시를 참고하여 날짜/ 공감(이모지 붙이기)/ 한줄기사 작성을 해 봅시다.

Covid 19 Events Timeline from Outbreak to ?

12/30/19		(중국/ 특이한 패렴 사례) 우한시에서 발생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식별하고자 노력하는 중 감염자 수가 40명을 넘었다.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		(국 가 / 제 목) 위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한 문장 기사로 표현하기

Emoji로 공감하기: 자신이 선별한 6건의 기사에 대한 각각의 감정을 아래 이 모지를 활용하여 위 Covid19 Events Timeline Outbreak에 붙이시오.

○ Covid19 Events Timeline Outbreak를 작성한 후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WHO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알린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WHO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각국 대표부 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경험과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대표부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네덜란드 대표부가 한국 측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그는 한국이 환자를 조속히 찾아내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조치했으며, **매일 두 차례 정부 브리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 한 점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등 창의적인 대응은 물론, 각국의 요청에 따른 진단 키트의 수출 확대 노력도 알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3개국의 보건부 장관도 초청 돼 자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연합뉴스

▶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03100088?input=1195m>

[#힘내라_대구경북] “작은 마음 모아 대구에 책 보내요”

9일 출판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시민들을 위해 서점, 작가, 독자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A서점은 #대구에책보내기 캠페인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출판사로부터 받아둔 홍보용 책, 일반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책을 모아 대구·경북 지역으로 보냈다.

작은 서점이 하는 일이니 애초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스무 명 정도에게 그칠 줄 알았다. 그런데 입소문이 돌면서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 한정은씨를 비롯, 150여명의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책이 전달됐다.

필요한 책을 구입해 보내라며 수십만 원을 보낸 사람, 대구·경북 사람에게 띄우는 편지를 동봉한 사람, 자신의 책을 기부하겠다는 작가, 책 기부에 동참한 인근 서점, 포장과 배송이라도 돕고 싶다는 시민의 마음 등이 모인 결과였다.

조용했던 A서점 캠페인은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인근의 또 다른 책방은 60여명의 작가로부터 책을 추천 받아 대구·경북 지역 독립서점, 동네책방에 보내기로 했다. 대구 지역 서점인 아템파우제도 “저 또한 대구에 거주한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많은 분들의 따스함을 받았다”며 지역 사회 책 나누기 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큰 조직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협회 차원의 책 보내기 운동을 벌일지 검토 중이다. 교보문고 관계자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책으로 응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 <http://news.zum.com/articles/58668522>

번호	생각해 볼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기사 중 밑줄 친 부분에 관하여 아는 바를 이야기해 봅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질병 대응책으로 주변과 지역사회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유도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5가지 핵심목표와 17가지 목표와도 연계시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p>5가지 핵심목표</p> <p>(사람) 가난과 굶주림 없애기 (지구) 악화되는 지구 보호하기 (번영) 모든 인류가 번영의 삶과 충족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평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p> <p>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p> <p>(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난민, 분쟁 (지구 환경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 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p> 



코로나19 극복 세계시민 성장 학습 자료 제작팀

	이름	소속	비고
1	장경원	광문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2	승현아	서초중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3	최유정	서울백산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4	임재민	서울송전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5	홍윤빈	정원여자중학교	평화·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세계시민교육 발간 자료 활용 사이트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세계시민교육 자료실: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354>
-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
- 기타 참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http://www.unescoapceiu.org/ko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 유네스코 협동학교(ASPnet) <http://cafe.naver.com/unescoaspnet>
 -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KOICA ODA) <http://www.odakorea.go.kr>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http://www.ngokcoc.or.kr/>
 - 지속가능발전목표(외교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fakr/220519949945>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